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2026. Vol. 2

달리진 교실, 새로운 학교 과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탐색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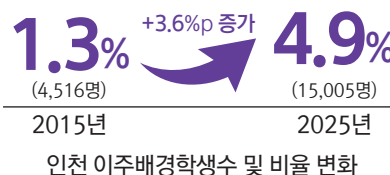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QR

문영진 (교육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도입 Introduction

🌀 인천의 교실이 달라지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 재학생 수가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²⁾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뜻하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함.
- 학생 구성의 다양화는 학교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 전반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침.
-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이주민 증가로 밀집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관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5개교의 학생(40명)·학부모(26명)·교원(28명)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연구 내용 Contents

🌀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가 경험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 [학생] 한국어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언어와 학습 경험의 차이로 수업 이해도에 격차가 나타나며,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진로 정보 접근성과 또래 관계 형성까지 제한하고 있음.

외국 학생들은 자기가 언어를 모르니까 진로를 좀 포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 언어를 몰라도 끝이 아니라 또 나아질 수 있으니까 좀 위로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한국어니까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

- E학교 이주배경학생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말을 아예 모르면 러시아 말을 하는 친구들만 친하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면 한국 친구들도 같이 친해요.

- E학교 이주배경학생

■ [학부모] 한국어 교육 인식

학부모들은 한국어를 학교 적응의 핵심으로 보며, 과도한 통역 지원은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게, 제 생각에는 한국 선생님한테 따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역사가 있으니까 한국어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무관심하고, 통역사 말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 A학교 이주배경 학부모

1) 본고는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수시연구과제로 수행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방안 연구」(문영진 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QR코드로 본 연구결과보고서 열람 가능)
 2) 이주배경학생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함. 교육부는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다문화학생’ 대신 ‘이주배경학생’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브리프에서도 이에 따라 용어를 통일함. 한국 국적 학생은 ‘비이주배경학생’으로 칭함.

비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가 경험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 [학생] 비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함께하는 학교생활

친구들의 문화적 배경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일반적인 친구 관계로 받아들이며,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업 이해도 제고 등 긍정적인 이점이 있음을 언급함.

그냥 친구. 다문화가족인 건 알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해요. 어떨 때는 그런 거 까먹고 그냥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예 다문화가정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 C학교 비이주배경학생

저도 (수업 내용을) 이해 못할 때가 좀 많은데, 선생님께서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셔서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 E학교 비이주배경학생

교사가 이주배경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 반복 설명하거나 학습 속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늦어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주배경학생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이주배경학생이 한국어와 한국 학교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동화주의적 인식과 연결됨.

수업 진도 지연에 대한 경험

이주배경학생들이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좀 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진도를 잘 못 나가세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진도가 늦어서, 거의 시험 기간 직전까지 수업하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 E학교 비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 형평성에 대한 우려

(이주배경) 친구들한테 이미 지원이 다 들어와서 솔직히 더 지원해주면, 한국 학생이 더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 B학교 비이주배경학생

일방적 동화주의에 대한 인식

개네(이주배경학생)가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 학교 분위기는 한국인이 러시아한테 맞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 E학교 비이주배경학생

■ [학부모] 비이주배경 학부모의 밀집학교 지원 인식

학교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저희가 다문화학교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많이 되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은. 저는 활동을 하니까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런 거에는 조금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 A학교 비이주배경 학부모

평가 수준과 수업 난이도가 학교 평균에 맞춰 낮아짐에 따라 자녀의 학습 수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 이는 정책에 대한 긍정과 우려가 공존함을 보여주며, 구성원 간 공감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함.

평가 방법도 서술형이든 지필평가든 똑같이 하게 되는데, 그 난이도를 선생님들은 평균에 맞춰야 되잖아요. (중략) 그러면 저희 아이들한테는 다른 주변의 학교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다고나 수업의 질이 좀. (낮아지는 거죠)

- E학교 비이주배경 학부모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밀집를 제한, 국제학교 전환, 분리합급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요구하기도 함.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냥 다문화학교로 몰았으면 좋겠다,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제일 크죠. 항상 그런 나오는 말 이거든요.

- A학교 비이주배경 학부모

차라리 국제학교처럼 해보면 좋겠어요. 외국어를 많이 하거나 수업 시간에 그런 문화를 해보고. (중략) 아마 (지금보다)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요.

- D학교 비이주배경 학부모

교원이 경험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 [수업과 생활지도] 언어적 배경 차이로 인한 지도 애로

한국어 능력이 상이한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학습하면서 수업 운영과 학생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 일부 교원은 학생들이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교 규율에 적응하도록 지도하는 데 한계를 경험함.

수업시간에 한국말 쓰는 사람들은 교사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는 러시아말을 써요. 수업 시간에도 어차피 한국말을 모르니까, 혼자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러시아 사람이면 학생들이 한국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 A학교 교원

갑자기 부모님 따라와서 낯선 환경에 문화도 달라. 여기서는 더 엄격하고 규율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서 적응도 힘든데 말은 또 안 돼. 수업시간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학생들이 뭔가 내적인 동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 E학교 교원

■ [교육과정 연계] 한국어학급과 일반학급의 연계성 부족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일반 교과 수업 사이의 연계가 미흡한 점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함. 한국어학급에서 배운 단어나 용어가 일반 교실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부재하여, 두 수업이 별개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데 한계를 겪음.

4학기를 한국어학급에서 하고 교실에 오면 거기서 같이 활용했던 단어나 용어나 한국어에 관련되어서 교실에 와서도 교육과정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한국어학급에서 4학기를 배우고 왔던 내용들이 일반학급으로 와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 거기(한국어학급)는 별도의 어떤 수업이나 활동이고 일반학급에 와서도 또 별도의 수업이다 보니까 연계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 B학교 교원

■ [필요한 지원] 구조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교육환경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차원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함. 구체적으로는 학생 상담·생활지도 및 학부모 소통을 위한 언어 지원 인력 배치, 전보점수(금지 점수) 및 수당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제시함.

애를 상담하고 어떻게든 지도하고 할 수 있으려면 언어가 되는 상담사를 학교에 상담사 꼭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B학교 교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승진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생하는 건 정말 다 같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진짜 금지 점수라도 좀 더 부과를 해줘서 다음 학교에 이제 이동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 A학교 교원

■ [교원 인식] 다문화 수용성과 동화주의적 인식의 공존

일부 교원들 사이에 동화주의적 시각과 편견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함. 학생들이 교실과 복도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한국어 사용을 강조하는 인식이 드러났으며, 비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제기함.

아이들이 너무 뽀뽀하게 러시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복도도 그렇고 교실에서도 엄연히 선생님도 한국 선생님이고 여기는 한국인데 애네들 너무 자유롭게 너무 크게 자기 말 다 하고 이려고 있는 거예요. (중략)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때문에 한국말을 써야 돼, 적어도 자유롭게 얘기는 안 돼.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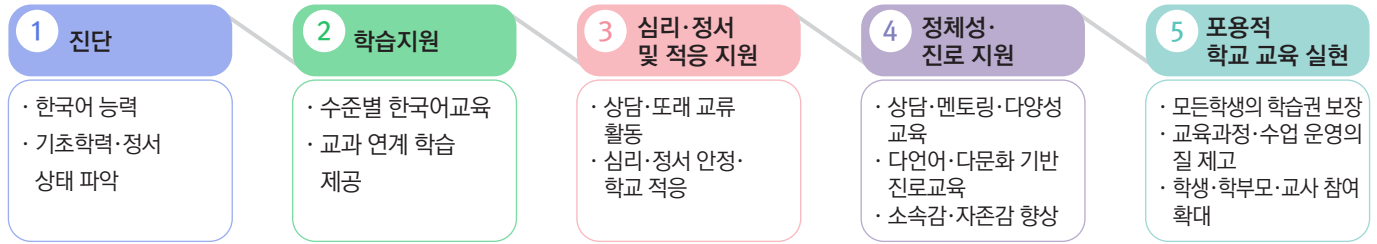
- B학교 교원

원주민 아이들한테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집에서 사실 가정 형편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우리 원주민 아이들은 집에서 그렇고 학교에서 따로 주는 거 없잖아요.

- D학교 교원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방안

■ [학생] 학습자 기반의 맞춤형·포용적 지원 체계 구축



■ [학교 및 지역] 밀집학교 특성화 전략 및 연계 체계 마련

- 인천형 미래학교 모델 도입: 밀집률이 높은 학교들을 통합·재구조화(1교 다캠퍼스 체제)하여 모국어·한국어·세계시민·AI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새로운 공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벨트형 교육과정 운영: 밀집학교와 인근 학교들을 ‘다문화 벨트구역’으로 묶어 교육과정·공간·인력을 공유하고, 학교별 거점 기능을 특화하여 학생 이동 기반의 연합형 체제와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됨.

■ [교원 및 여건] 학교 여건 개선 및 체계적 지원

- 전문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한국어교육 및 상담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업무 경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확충: 교실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함.

■ [인식 개선]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 학교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인식을 높이고 상호 배움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과제] 다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구조적 교육체제 개편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반영: 교실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다언어·다문화 요소(세계시민교육, 상호문화교육, KSL 기반 교육과정 등)를 반영하여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정 간소화 및 유연화: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간소화하여 교원의 수업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어학습자·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 최소 성취기준을 유연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결론 Conclusion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사회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교육 현장이며, 포용적 교육체제를 실험하고 확산할 수 있는 미래학교의 출발점임. 밀집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은 특정 학생 집단을 위한 대응을 넘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미래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인천교육 연구브리프는 정책연구 결과 및 정책 동향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는 교육정책연구소 발간자료입니다.

**인천교육
연구브리프**

2026. Vol. 2

발행일 2026. 6. 27.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6-0137)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문의처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 TEL 032.420.8206
<https://ice.go.kr> - 교육 - 교직원 지원 - 교육정책연구소